

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2024년과 2025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속히 증가하며 2025년 전세계 재생에너지발전량이 처음으로 석탄발전량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고 연관산업과 발전용량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각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증거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지난 10월 초 발표한 11번째 연례보고서 '2024년 재생에너지와 일자리'에 수록되어 있다.

이웃 나라 중국이 740만 개로 46%를 차지했고, 유럽연합(EU)이 180만개, 브라질이 156만개, 미국과 인도가 각각 100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23년 재생에너지 신규 일자의 3분의 2를 기록,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질주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편중 현상이 뚜렷하고 중국의 압도적인 성장은 다소 불균형한 것처럼 보인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PV)이 720만개로 지난 수년 동안 강력한 추진력이 작동되었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태양광 제품의 제조와 설치를 선도하는 중국이 420만개로 가히 압도적이다.

그들의 태양광 관련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대폭적 투자로 이 지역이 태양광 수출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에서 280만개로 두 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다. 브라질이 선두 주자로 90만개, 인도네시아가 70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수력은 230만개로 현상 유지 수준이며 중국과 인도, 브라질에서 많은 일자리를 기록하고 있다. 풍력은 150만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중국과 유럽연합이 각각 52%와 21%로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유엔은 기후총회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를 결의한 바 있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섭씨 1.5도' 이내로 기온상승을 억제하고, 2050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다. 이를 구현하려면 화석연료 퇴출이 불가피하고 대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성장이 보장되고 더 많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밖에 없다.

IRENA는 이런 추세를 감안,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4000만개의 추가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며 각국 정부가 이 분야의 인력양성과 교육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념비적 업적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2주년이 되었다.

백악관이 '일자리 창출법'이란 별칭으

로 불리는 이 법 제정 이후, 2년 평가에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33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법에 제정 이후 2650억\$(약 360조 원)가 투자가 진행 중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 일자리는 어느 정도일까. IRENA의 이번 보고서에 짧게 언급되어 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자료를 인용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17만 5000개로 적시되어 있지만 재생에너지 분야별 분석은 없다. 가장 많은 분야 14만 6000개로 전기생산과 열공급 분야이다. 재생에너지 일자리 추계가 매우 애매하다. IRENA는 태양광 분야에서 3만 1000개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도입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의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세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도의 사례를 보자. 전남은 해상풍력으로 신안 8.2GW 포함 30GW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6GW는 허가가 났다. 신안 8.2GW 프로젝트만 해도 약 45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계획이 실행된다면 향후 신규 일자리 수만~수십만 개가 창출될 수 있다. 고품화, 인구감소, 지역소멸, 저출산 등을 이겨낼 훌륭한 방법이다.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보장되는 재생에너지 부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화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업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0일(현지시각) 칠레 산티아고에서 연례 좀비 퍼레이드가 열려 한 여성이 화려한 분장을 하고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세계적으로 저명한 철학자나 예술가, 작가 가운데는 삶의 일부분으로 정원(庭園)을 가꾸면서 영감을 얻었던 사람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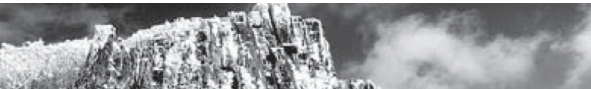
시인이며 소설가, 화가였던 헤르만 헤세도 '정원에서의 생활은 인생에서 누리는 마지막 행복'이라 여겨 그 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오로지 밤에만 글을 쓸 정도로 정원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고 한다.

땅에 식물을 키우고 가꾼다는 것은 삶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식물은 녹색을 띠어 생명을 연상하게 하니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그래서 흑자는 정원을 두고 둘러싸고(gan) 즐거움(odon)을 주는 곳이라고 해석한다.

식물과 교감하고 가꾸는 것은 생명과 우주를 들여다보는 일인지라 그 마음에는 대지, 물, 햇빛 등 자연에 대한 경건함이 있다. 그리고 사계절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생명력에 대한 확신도 있다.

대부분의 정원지기들은 이 경건함과 믿음에 이끌려 이리저리 다니면서 섬세한 손길로 널따란 땅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생명의 땅 남도 곳곳에는 정원지기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가꾼 그림같은 정원과 수목원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다. 2017년 고흥땅 기트머리 작은 섬 애도에 '제1호 힐링파크



쑥섬쑥섬'을 시작으로 지난해 '제27호 우림원'까지 민간 정원으로 스물일곱 곳이 등록됐고, 수국 천국으로 불리는 해남 포레스트수목원 등 사립수목원도 세 곳이 문을 열어 나들이객들을 반기고 있다.

민간 외에 관(官)에서 조성한 정원도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정원이다. 전남 1호는 순천만정원이고, 담양 죽녹원이 2호로 그 이름을 올렸다.

지난 달 지방정원이 한 곳 더 늘었다. 전라남도 최대의 산림 휴양공간인 구례 지리산정원이 3호로 등록됐다.

지리산정원은 구례군 광의면 일대 193ha 규모로 야생 화데마랜드, 지리산 자생식물원, 구례생태숲, 숲속수목가옥 등 정원시설을 포함한 공간이다.

인간에게 영감과 마음의 안식을 주는 원천은 자연이다. 누구라도 갖가지 식물을 예술처럼 배치한 정원, 이 작은 우주 속에서 어슬렁거리거나 머무르면서, 일상 너머에 있던 자연의 경이를 감각하고, 사유하고, 상상한다는 것은 더없이 기쁘고 즐거운 일임이 분명하다.

정원을 걷노라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같이 가을 정원 숲길을 거닐고, 쉬고, 생각하면서 마음 산책을 하다 보면 도시에서부터 따라온 이런저런 번뇌들이 절로 사라질 지도 모를 일이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社說

더 이상 늦춰선 안될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활성화 등 차질 안돼

2025년 개통될 예정이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인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가 지연될 경우 전남은 이동성과 수도권 접근성에서 불이익을 받고, 지역 최대 현안인 무안공항 활성화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최대한 지연시기를 단축시키려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21일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광주송정~나주 고막원~무안 국제공항~목포 임성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호선 개통을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내년 끝날 예정이던 2단계 사업 기간이 2027년으로 수정된 것이다. 총사업비 또한 2조 5889억 원에서 2조 8100억 원으로 변경됐다. 2단계 공사현장 내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유적이 발견된데 따른 것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관계 기관의 판단이다.

지난 2004년 호남선 복선과 전철화를 완공한 호남고속철은 2015년 광주 송정역까지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무안공항 경유 문제로 노선 확정이 미뤄졌다. 2017년에야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됐다. 개통 시기도 2025년까지 미뤄졌다. 여기에 유적 발굴을 이유로 또 다시 완공이 늦춰질 경우 전남은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이라는 정부의 철도망 계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양대 교통 축을 이루는 경부·호남선 고속철도망과 장래 철도망 연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무늬만 국제공항으로 남은 무안공항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상대적 낙후지역인 전남의 성장동력 창출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호남고속철 2단계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를 넘어 광주와 전남의 경제와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업이다. 내년 개통에 맞춰 추진중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도 차질을 가져온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에 3조 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의 미래가 달렸다.

광주 '백색가전' 고부가가치로 변화해야

구모델 해외이전 대책도 필요

삼성전자 광주공장 일부라인이 11월 멕시코로 이전한다고 한다. 생산을 줄이면 지역 일자리가 줄 것이고, 협력업체의 경영난을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백색가전 프리미엄 전략에 따라 광주공장은 늘 건재했다.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던 해외 이전설은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우려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수원공장에서 2004년 생활가전 라인이 100% 이전하면서광주는 '백색가전의메카'가 됐다. 매년 3조~4조 원의 매출과 최소 2000명 이상의 지역인력 고용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그 당시 예측됐다. 백색가전은 국내의 고임금 시장에서 하향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부산으로 이전하려다 광주로 왔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이유 탓인지 삼성전자는 앞서 2010·2014·2016년 3차례에 걸쳐 냉장고, 청소기 등 광주사업장 가전제품 생산 라인 일부를 해외로 이전한 바 있다.

그때마다 광주 사업장 정리 수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하지만 광주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라는 우려 대신 백색가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통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무풍에어컨'이 대히트를 쳤고, '비스포크'라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생산량은 줄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광주 생산라인을 통해 'Mother Factory' 전략을 담은 고부가·프리미엄·신모델 위주로 생산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불거진 냉장고 모델 2개 라인에 대한 멕시코 이전도 신산업 전략을 위한 구모델 이전과 맞닿아 있다.

구모델 이전으로 협력업체 20곳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점은 가슴 아픈 일이다. 삼성전자가 이전 대책 등 협력업체와 상생전략을 통해 동반성장을 해야 하는 책임은 당연하다. 다만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해외이전을 막는다면 광주의 가전산업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특히면 터지는 이전 반대는 누구를 위한 항변인지 자칫 지역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